

북부 베트남 타이족 관광마을의 이미지와 관광객의 시선에 관한 연구

최 호 림*

국문초록

이 논문은 베트남 호아빙(Hoa Binh)성 마이쩌우(Mai Chau) 현의 대표적인 타이(Tay)족 관광마을에서의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소수종족 관광마을의 이미지와 관광객의 시선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이다. 마이쩌우의 타이족 마을이 단순히 국민국가의 통치 대상으로서 독자적 전통과 고유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사는 고립된 종족 마을에 머물지 않고 ‘문화관광 마을’로 변모해 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광의 대상이자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소수종족 집단의 역동성을 고찰하고 관광업의 영향에 의한 종족마을의 변화와 지속에 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우선, 마이쩌우 타이족 마을에서 관광을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요소와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 관광산업이 관광할 가치가 있는 이국적인 면모를 어떻게 구분하여 재현하는지 해석한다. 둘째로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모습과 마을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관광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의 생활과 관광이미지 사이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고찰한다. 마을의 일상생활의 실제적 패턴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마을의 보다 정확한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끝으로 서로 다른 관점과 동기에서 방문하는 다양한 관광객의 시선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베트남, 소수종족, 타이(Tay), 문화관광, 관광이미지, 관광객의 시선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hrchoivn@hanmail.net.

I. 서론

이 연구는 베트남 호아빙(Hoa Binh)성 마이쩌우(Mai Chau) 현의 대표적인 타이(Tay)족 관광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수종족 관광마을의 이미지와 관광객의 시선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마이쩌우는 수도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70km 거리에 있는 호아빙시를 지나 65km 정도 이어지는 산길과 고개를 넘어 가면 도착하는 넓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마이쩌우는 호아빙성의 10개 현(district) 중의 하나이고, 현인민위원회가 소재한 마이쩌우티쩐(Thi tran Mai Chau, Mai Chau town)과 22개의 ‘싸’(xa, commune)로 구분되어 있다. 대표적인 타이족 거주 마을인 ‘반락’(Ban Lac), 즉 락마을은 찌엥쩌우싸(Xa Chieng Chau)에 속하는 여섯 개 자연마을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반락을 중심으로 하는 타이족 관광마을은 ‘찌엥쩌우’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지만, 흔히 ‘마이쩌우 타이족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다.¹⁾ 공식적으로 다수종족인 비엣(Viet, Kinh)족과 53개 소수종족으로 구성된 베트남 인구에서 타이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공식분류 명칭은 ‘타이’(Thai)이며 ‘타이’(Tay)는 타이족 스스로가 부르는 이름이다.²⁾

베트남 정부와 관광업체가 마이쩌우의 소수종족 마을에서 추진해 온 관광의 형태는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이다. 이는 마을 입구의 아치형 현판에 쓰인 “문화관광마을”(Ban Van Hoa Du Lich)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보여준다. 마이쩌우의 타이족 마을이 단순히 다종

1) “Hòa Bình” https://vi.wikipedia.org/wiki/H%C3%B2a_B%C3%ACnh; 호아빙성인민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oabinh.gov.vn/> (최근 검색일: 2017년 6월 23일). 호아빙성은 1975년 12월 하띠이(Hà Tây)성과 합쳐져 하썬빈(Hà Sơn Bình)성이 되었다가 1991년 8월 다시 호아빙성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 인구센서스 결과 호아빙성의 인구는 808,200명이고, 마이쩌우현은 55,663명이 거주하고 있다.

2) 베트남의 소수종족 분류체계와 타이(타이)족에 관한 설명은 최호림(2012; 2017b), Dang Nghiem Van et al. (2010); Nguyen Van Thang (2007) 등을 참조바람.

족으로 구성된 국민국가의 통치 대상으로서 독자적인 전통과 고유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사는 산간 오지의 고립된 종족마을에 머물지 않고 문화관광 마을로 변모해 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대상이자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소수종족 집단의 역동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나 관광업체,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한 외부의 힘과 소수종족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활용한 여러 홍보자료에 담긴 소수종족에 관한 신화와 이미지가 실제 소수종족의 생활의 면모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이 이러한 표상들과 이미지와 소수종족 문화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하여 재구성하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마이쩌우 타이족 마을에서 관광을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요소와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 관광산업이 관광할 가치가 있는 이국적인 면모를 어떻게 구분하여 재현하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로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모습과 마을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관광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의 생활과 관광이미지 사이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고찰하겠다. 일상생활의 실제적 패턴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마을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끝으로 서로 다른 관점과 동기에서 방문하는 다양한 관광객의 시선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관광이미지와 표상이 관광 대상의 실체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관광객이 이에 대하여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셀윈은 국가 정책과 관광산업에 대한 한 연구에서 관광이미지와 신화가 어떻게 관광 대상과 연관되어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Selwyn 1996). 복잡한 도시와 대조되는 소수종

족의 원초적인 생활문화와 원시적 삶에 대한 신화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18세기와 19세기 서구에서 발달한 낭만주의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관점이 현대 자본주의 산업화와 문명에 대한 문화적 반응이자 비판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Wang 2000: 86). 이 연구는 특히 ‘고상한 야만인’과 ‘원시부족’에 관한 낭만적 관점과 주민들이 관광요소를 재현하여 표현하는 방식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존 어리(Urry 1990)에 따르면, 이미지와 신화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와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시선을 끌어들이 만큼 이국적이고 비상하게 보이는 것을 만들고자 한다.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물이나 안내 자료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관광대상 주민들의 문화는 관광객의 문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마치 사이드가 주장한 ‘오리엔탈리즘’처럼 ‘다른 문화의 요소들만을 지닌 사람들’로 재현한다(Said 1978). 그러나 여행안내서나 브로슈어가 무엇이 불만한 것인지를 결정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다르게 볼 자유가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자유도 남아 있다”(MacCannell 2001: 24).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관광지의 신화에 관련된 특징들이나 관광객이 구경하는 방식은 ‘탈정치화되고, 탈맥락화되고, 단순화되고, 몰역사적이며 낭만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Wang 2000: 161; Biles et al 1999; Kennedy and Williams 2001). 이러한 점은 특히 관광지를 설명하는 각종 서적이나 표현물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마을들이 위치하는 ‘자연적인 장소’에 대한 것과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나 생활양식에 관한 것이다. 마을에서 일상생활의 패턴이나 마을에 대한 관광객들의 실제적인 시선에 대해 초점을 두면 이미지 재현과 실제 사이의 모순이 관찰된다.

이 연구의 주요 방법은 인류학적 현장연구이다. 연구자는 파이족

문화관광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관광객의 활동을 참여관찰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는 2016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동년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와 2017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지만, 필자는 1996년 이후 이곳에 여러 번 ‘여행자’로서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현지조사 기간에 약 30명의 주민들과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만나 대화하였다. 필자는 마이쩌우에서 가장 유명한 소수종족 홈스테이 관광촌인 락마을을 중심으로 짜엥쩌우의 여러 마을을 다녔고, 현의 중심지인 마이쩌우티쩨과 마이히(Mai Hich) 등 인근 마을을 방문하여 남녀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경우 두세 차례 만나 비구조적 질문을 통한 면접을 하였고, 주제보자 역할을 한 홈스테이 주인들은 여러 차례 만났다. 일부 노인들은 여전히 타이어를 사용하고 베트남어를 온전히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제보자 주민들이나 동행한 여행 가이드의 통역 도움을 받아야 했다.

II. 베트남 ‘문화관광’에서 타이족 문화의 재현방식과 소수종족 이미지

마이쩌우의 타이족 마을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베트남 14일~21일 남북 중단 버스 여행 패키지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하노이를 방문한 여행객은 시내 곳곳의 여행사에서 1일 투어 또는 1박 2일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쩌우를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썬라(Son La)성의 목쩌우(Moc Chau)나 라오스와 국경지역 최서북단인 디엔비엔푸(Dien Bien Phu)에 방문하는 일정을 포함하여 4~5일짜리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다지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여행사에서는 마이쩌우 문화관광에 대해 하노이에서 대형버스 또는 미니버스를 타고 하노이와 호아빙성 경계로 이어지는 시골 경치를 지나 ‘타이 부족의 고향’(tribal home of the Tai people)인 마이쩌우의 마을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이 여행의 핵심은 “타이족의 단순하고 인락하고 청결한 집에서 마을 주민의 손님이 되어 따뜻하고 전통적인 베트남 사람의 친절과 접대문화(hospitality)를 경험하는 것”이다. 홈스테이에 머물면서 타이족 전통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현지 학교를 방문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물을 짜는 집을 방문하여 구경하고 기념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마이쩌우 패키지 관광의 핵심은 “북부 고산지역의 자연을 탐험하고 마이쩌우의 부족민 집에서 홈스테이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다(Wendy Wu Tours 2004: 8).

베트남 현지여행사의 카탈로그에 적힌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패키지의 대표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Khanh Sinh International Tourist Company n.d. p.12.).

제1일: 하노이- 깐보이(Kim Boi)-마이쩌우

06:30 투어가이드를 만나 버스편으로 하노이에서 출발

10:30 깐보이에 도착 후 광천수 목욕, 점심 및 휴식 자유

14:00 버스편으로 마이쩌우 방문 전통적인 직물(*Tho Cam*) 제조 과정 관찰, 기념품 구입 등

18:30 홈스테이에서 타이족 전통음식으로 저녁 식사

19:30 타이(Thai, 타이) 소녀들 “대나무 댄스”(mua sap, bamboo dance) 관람 및 참여, 들뜬에서 모닥불 놀이하하며 노래와 춤 배우기, 쌀술을 마시고 공연 관람하고 주상가옥에서 취침

제2일: 호아빙-하노이

6.30 아침 식사

7.00 마이쩌우를 출발하여 호아빙수력발전소 방문, 호아빙시에서 점심

13.30 버스편으로 하노이로 출발

15.30~16.00 하노이 도착, 일정 종료

한편, 호아빙성 인민위원회에서 호아빙성의 여러 관광지와 유적지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와 베트남어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 중에 마이쩌우 관광 소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마이쩌우. 호아빙성에서 60킬로미터의 고갯길과 산길을 지나 오랫동안 베트남과 외국인 관광객의 빈번한 목적지가 되어 온 마이쩌우에 닿는다. 이곳은 타이족과 호몽족 거주지이고 마을이 순수한 아름다움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유명하다. 그곳에서 관광객은 때 묻지 않은 원시적 자연 그대로의 숲을 지나 트레킹을 하고, 소수종족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 그리고 축제를 경험하고 특히 고산 소녀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화려한 직물과 의복 장식품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Hoa Binh Trade and Tourism Department n.d. pp.12-13).

마이쩌우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에서 관광산업이 장소와 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특정의 요소를 부각하여 타이족의 관광이미지를 만들어 보여주는지 알 수 있다. 그 내용이 관광객의 상상의 부분이 되고 마을의 이미지와 신화를 형성해준다. 관광의 이미지들은 장소와 사람들에 관하여 특정 면모를 부각하여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과도하게 알려주는 반면에 여타의 특징들을 감추거나 미미하게 알려주게 된다. 마을이 이국적이고 독특하다는 점은 지나치게 많이 언급되어 소통되고, 평상적이거나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면은 제외된다.

관광 홍보물이나 안내자료에서 장소나 마을을 둘러싼 환경은 대개 낭만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마이쩌우 타이족 마을에 대해서는 ‘북부 고산지역의 경치 좋은 시골’의 모습이 원초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산간의 자연은 계곡과 하천을 흐르는 물, 그리고 원초적인 숲의 모습 등을 포함하여 멋지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풍경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낭만주의적인 ‘자연 숭배’를 명시하는 것

중 하나이다. 또한 “회색빛” 도시의 악몽과 대조되는 “녹색” 꿈의 장소로 작용하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에 대한 동경”을 보여준다 (Wang 2000: 87). 이러한 동경은 농촌관광과 자연관광에서 반복되는데, 그러한 관광에서 ‘풍경’과 ‘야생’이 관광객의 소비를 위해 (재)구성된다. 관광 안내물이나 홍보자료에서 마을과 주변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트레킹하는 것을 강조하고 관광객들은 산간지역과 계곡 마을을 관찰하고 탐험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역시 낭만화된다. 이러한 이미지에는 두 가지의 관념이 만들어져 있다. 하나는 ‘고상한 야만인’이라는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원시성’에 관한 신화이다(최호림 2017a; McGrane 1989)

고상한 야만인이라는 신화는 대개의 ‘종족관광’(ethnic tourism) 홍보물의 이미지에 담겨있다. 현대 사회나 문명을 직접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개 보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행복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다. 마이쩌우의 관광마을에서 고상한 야만인이라는 낭만화되고 이상화된 이미지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본색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방의 손님을 초대하여 맞이하는 환대의 전통’을 지니고, ‘주상가옥에 거주하는 정겨운 가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 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유럽의 식민주의가 확산되던 19세기는 문명과 자연의 대조가 분명하고 문명이 확고히 우위를 차지한 시기였다. 미개인(the savage)은 천진난만하고 자연에 가까운 순수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진화주의 사고가 진보에 토대를 둔 이론을 만들어, 소위 문명세계의 사람들의 시선에 ‘이국적이고 낯선 것’을 ‘원시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정당하게 하였다(McGrane 1989: 99). 이러한 변형은 현존하는 미개인은 ‘문명화된’ 유럽이 과거 오래 전에는 마찬가지로 미개하였으나 진화를 통해 진보하여 최종적으로 문명화된

과정의 역사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가치의 차원뿐 아니라 시간의 차원을 함축하는 위계가 만들어진다. 즉, 베트남 소수종족은 발전의 수준에서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산업에서 비춰지는 ‘고상한 야만인’으로서 소수종족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진화주의와 거의 같은 시기에 풍미한 낭만주의적 관점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낭만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원시성의 숭배’(the cult of primitive)이다(Wang 2000: 87). 이것은 전근대적인 모습과 단순하고 자연적인 생활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맥켄널은 관광산업에서 나타나는 원시문화에 대한 숭배나 전근대성에 대한 동경에 관해 지적한 바 있다(MacCannel 1976). 관광객은 당대의 생활 상태에서 탈피하여 다른 시대와 장소의 진정성을 찾고자 하고 현대 세계가 파괴한 것으로 보이는 삶의 원형과 구조를 재창출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구가 종족관광이나 문화관광을 생겨나게 했다. 여전히 주상가옥에서 살고 있는 ‘부족’ 혹은 ‘소수 종족’의 이미지가 이러한 단순하고 전근대적인 세계에 대한 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이며, 이는 ‘전통적인 친절과 환대’, ‘전통적인 직물 짜기’ 같은 묘사에 그대로 담겨 있고, ‘전통적인’ 그 무엇이든 진정으로 무시간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관습이라고 함축하는 것이다.

마이쩌우의 마을들에 대한 관광 홍보물이나 안내서에도 무시간적이고 탈맥락화 된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다. 대개는 산간 소수민족들이 오랫동안 고립된 외딴 마을들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러한 재현방식은 소수민족 주민들이 겪어온 지난한 변화의 과정으로서 지방사(local history)와 외부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최호림 2017b). 이러한 점이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소수종족 문화에 대한 서사나 이미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관광산업은 ‘무시간적으로 그림처럼 펼쳐지

는 고대의 신비와 식민지의 매력(timeless picturesque scenes of ancient mystery and colonial charm)'이 곧 '진정한' 베트남의 모습이 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이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Kennedy and Williams 2001: 151). 소수종족 마을들도 인도차이나의 대부분 지방과 마찬가지로 식민시대부터 전쟁과 환란을 겪어 왔으나 '침묵하고 분노가 사라진 역사'(muted and angerless history)를 지닌 곳처럼 재현된다(Kennedy and Williams 2001: 136). 그곳에서는 무시간성이 베트남의 격동의 과거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회적 상태들을 탈역사화 한다(Biles et al 1999: 208).

띠이족의 주상가옥(stilt house)에 관한 홍보물의 이미지도 위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목재와 대나무로 지어진 주상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곧 구경거리인 경관 자체가 되기 때문에, 주상가옥에서의 생활이 관광객의 소비를 위해 심미적으로 가치가 있고 적합한 '문화적 풍경'(cultural landscape)이라고 할 수 있다(Allan 2011: 115-16). 이러한 모습은 '고산 부족마을 홈스테이에서 밤을 지낸다'라는 문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띠이족의 소박하고 안락하고 깨끗한 집에서 가족의 일원이 되어', '마이쩌우에서 태고의 원시적 숲을 산책하고', '고산 종족집단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 축제를 탐색하고', 특히 '고산 소녀들의 정교하고 꼼꼼한 솜씨로 하는 직물짜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된다'는 등의 문구는 마이쩌우 관광안내문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주상가옥에 매혹될 것이라는 점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 주민들은 점점 더 주상가옥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게 되었고 관광객에게 스스로 주상가옥의 거주자가 될 기회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가구들이 '주상가옥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컴퓨터로 주상가옥 모양의 이미지를 그려 넣은 명함을 사용한다. 또한 주상가옥에

머무는 동안 ‘독특한 종족 음식과 음료, 진정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체험하고’, ‘타이족 전통 실크 의복과 직물을 구입하는’ 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 관광객이 홈스테이를 하며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이러한 체험을 모두 할 수 있으며, 관광객 자신이 마을 주민이 되고 스스로 문화적 풍경의 한 부분이 된다. 베트남 대도시의 서점이나 기념품점, 여행사에서 볼 수 있는 관광 안내서나 홍보물에 소수종족 농촌마을의 사진과 그림이 사용되고, 특히 우편엽서에도 마이쩌우와 같은 소수종족 마을에 대해 같은 핵심 요소들이 표현되어 강조되고 있다. 주로 마을의 골목과 주상가옥 사진, 그리고 타이족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 계곡 사이로 벼가 익어가는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정경, 뒤편 배경에는 논과 들판을 놓고 앞에는 주상가옥이 늘어진 마을 사진이 든 엽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도 그대로 들어 있고, 관광객이 포스팅하는 여행 후기나 사진집에도 유사한 이미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마을 주민의 사진도 자주 나오는데, 특히 전형적인 종족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 사진이 대부분이다. 여성화된 전통적 이미지가 ‘고산 소녀’, ‘타이 소녀’ 등의 묘사에도 나타난다. 즉, 베틀에 앉아 직물을 짜고 전통 무용을 하며 전통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으로 규정된다 (Taylor and Jonsson 2002: 245). 많은 홍보물에는 타이족 소녀 혹은 여성을 곧 매력 요소로 묘사하고 있다. 가령, ‘손님들은 타이 소녀들과 함께 대나무 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이다. 영어와 베트남어로 적힌 홍보물, 안내책자, 그리고 지방의 방송과 미디어에서 다양하게 타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간 [타임아웃 (Timeout)] 잡지는 영어로 출판되어 국제적 독자를 위한 잡지인데, “베트남의 다양한 소수종족 중에 타이(타이)족 소녀들이 특히 자연적인 미로 유명하다”(Viet Hung 2005: 11)고 적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대조되는 내용을 담은 국제관광객

을 위한 관광안내서도 간혹 보인다. 소수종족 문화관광에서 낭만화된 원시적 자연과 진정한 전통은 찾기 어렵다는 시선이 담긴 안내서도 있다. 가령, 마을을 찾는 국제관광객들 중 다수가 공통적으로 지참하여 오는 여행안내책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론리 플래닛 (Lonely Planet)]이라는 책이다. 론리플래닛 베트남편에는 베트남의 지리, 생활정보, 가볼 곳, 먹을 것, 숙소에 대한 일반적인 여행 정보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가가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국가의 역사와 정치, 행정 등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과 도시에 대한 정보와 소수종족 마을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타이족 관광 마을의 ‘현대화되고 상업적인 측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논조를 포함한 설명을 담고 있다(Florence an Storey 1999: 265).

만일 당신이 인디어나 존스처럼 독특한 것을 찾아 나선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마이쩌우 소수종족 마을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문명화된’ 경험이다. 이 지방 행정기관은 이 마을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데 어떤 관광객을 수용하기 전에 ‘관광의 표준’이 되도록 마을을 개선했던 것이 분명하다. 전기가 들어오고 서양식 화장실이 있고 수도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변의 즐거움이 있다. 변을 보기 위해 땅에다 구덩이를 파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은 당신이 다른 곳 어디에선가 했을 지도 모르는 ‘산간 부족 마을 트레킹’(hill tribe trekking) 경험과는 다른 것이다...(중략).. 아주 멋지게 개량된 목재 주상가옥’에서는 그 무엇도 신성하지 않다(Nothing is sacred).

현대화된 편의시설과 상업주의를 제쳐 두고도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마을에서의 경험이 그다지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 타이족 주민들은 매우 친절하고 텔레비전도 있고 냉장고도 인간적이다. 평화로우며 깊으로 된 지붕의 주상가옥과 대나무를 이어 만든 마루에서 잠자게 된다.

한 여행객이 말했다.

“마이쩌우에서는 환상적일만큼 할 일이 없다. 카메라, 카드, 책 혹은 그 무엇이면 가지고 가라.”

이러한 재현방식은 마이쩌우 문화관광 마을이 종족마을로서의 특징이 그다지 없고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현대화된 마을의 모습이므로, 진정성을 추구하는 관광객에게는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현방식 자체도 소수종족 마을이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진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관광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관광안내서나 홍보물에서 소수종족마을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이러한 재현방식이나 이미지가 실제 마을의 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다.

Ⅲ. 마을의 일상생활과 관광 이미지와의 차이

다음은 마을 주민의 전형적인 일과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아직 홈스테이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집에 간혹 관광객을 받아 숙박시키는 가구의 경우이다.

새벽 다섯 시쯤 멀리서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른 아침 돼지를 먹이는 것은 큰 딸의 일이다. 그녀는 여동생들과 함께 자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고 머리를 묶고 단장을 한다. 대나무를 이어 만든 마루를 최대한 조용히 걸어 나와 반대편 부엌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거의 매일 아침 돼지들이 밥 달라고 꿀꿀대기 전에 일어난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식구들이 기상한다. 주로 어제 저녁 때 남은 음식들을 먹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큰 딸이 설거지를 하고 방과 집 주변 곳곳을 청소하는 동안, 여동생과 남동생이 서로 장난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이웃집들을 지나가고, 혹은 이 집 저 집을 빈둥거리며 다니거나 가축을 먹이거나 놀면서 지나가기도 한다. 다른 가족들은 수

공예품 판매대를 정리한다.

관광객이 투숙한 날에는 손님을 위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집 아래층이나 옆 마당, 혹은 집 옆에 별도로 만든 식당에 식탁을 준비한다. 형제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다른 이웃들과 같이 걸으며 들뜬에 일을 나가기도 한다. 이웃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마이 짜우티쩐의 시장에 간다. 일하러 가거나 시장에서 아침을 사먹거나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이웃을 만나 이야기하기도 한다. 15번 국도가 주로 티쩐이나 마을 밖 학교로 가는 도로인데, 자녀들은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오토바이에 두세 명씩 올라 동행한다. 걷는 친구들과 속도를 맞추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은 큰 웃음소리를 내며 떠들고 있다. 아이들은 모두 하얀색 셔츠에 파란색 바지로 된 교복을 입고 있다.

이들의 일상생활 주기는 매일매일 아주 유사하게 진행된다. 소를 돌보는 것은 노인의 몫인데 주로 할아버지가 한다.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소들을 데리고 나가 풀을 먹이면서 논둑의 잡초를 베다. 이웃을 만나면 잡담을 나누며 잠시 쉴 때도 있다. 소를 먹이고 나면 돌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차를 마시며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한다. 가족이나 이웃을 소리쳐 불러 대화하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도 한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집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을 맡아 한다. 여러 가지 집안일과 관광업과 관련된 일이 계속된다. 천을 짜고 아래층에서 최근 성 정부의 주도하에 마을 여성연맹의 조직으로 시작된 사업 중 하나인 버섯재배 일을 한다. 또한 논에 나가 벼농사를 짓는다. 남편은 마을의 다른 남성들과 함께 이웃마을에 집을 짓는 일을 도우러 간다. 남편이 낮에 집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마을 밖에서 일감을 찾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 집에 있는 날에는 집 근처를 빈둥거리며 돌아다니거나 도구를 고치거나 수선 작업을 한다. 다음은 또 다른 가족의 일상이다.

막내아들은 마이쩌우 중학교에 다니고, 바로 위 막내딸은 마이쩌우 고등학교에 다닌다. 6학년부터 9학년까지 4년 과정인 중학생은 일주일에 6일간 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과밀학급으로 인해 오전에만 수업을 하고 있다.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인 고등학교는 종일 수업하는 날이 많다. 연구자가 체류한 홈스테이 주인의 딸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에 갔다.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에서 1.5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마이쩌우티쩐의 시장에 가지 않는 날에는 딸이 장을 보러 간다. 점심은 주로 고기, 생선, 두부나 달걀, 채소, 스프와 쌀밥 등을 각각의 접시에 담아 먹는다. ‘맘(mam)’이라고 부르는 큰쟁반이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눈다. 큰딸은 설거지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TV 앞에 모여앉아 베트남의 고전 드라마 시리즈를 보거나 마루에서 낮잠을 잔다. 이웃집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주로 점심 식사 후 한 시간 정도의 낮잠 시간에 마을은 보통 아주 조용하다.

보통 2시쯤에 오후 일과가 시작된다. 이웃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도 다시 들린다. 단체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마을에 도착한다. 대개 아침에 하노이를 떠나 한두 곳을 경유하고 점심 식사 후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들이다. 게스트하우스 가족들이 손님과 인사를 하며 맞이하는 동안 이웃들이 나와 지켜본다. 어머니는 막내딸이 학교 숙제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집안의 여러 잡일들을 하고, 일을 마친 후 면사로 팔찌와 핸드폰 손잡이 고리를 만들어 관광객에 팔려고 한다. 이들은 집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놀며 관광객을 지나쳐 논두렁까지 달려간다.

오후 늦은 시간에 일부 마을 여성들이 마을 가운데 공터에서 배구를 시작한다. 배구 네트가 쳐있고 옆에는 주차장이다. 매년 서너 차례 개최되는 현의 배구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관광을 온 두 연인이 지나치며 구경을 하다가 같이 경기에 끼어든다. 황혼이 지기 시작하자 누군가 북을 치기 시작한다. 야간 문화공연 행사에 참여하라고 알리는 신호이다. 마을에는 두 개의 무용단이 조직되어 있는데 북소리가 그 중에 하나의 무용단 공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왔다. 다른 가구들처럼 가족 중 한 명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음식재료를 구입한다. 대부분 가구들이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관광객을 위한 찬 음료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아버지가 귀가하여 씻는 동안 어머니와 딸들이 요리를 하며 저녁준비를 한다. 뭍을 놓고 둘러앉아 TV를 켜서 보기 시작한다.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뉴스가 방송된다. 막내딸이 가장 먼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문화공연준비를 위해 집을 나선다. 그녀는 화장과 장식을 하고 전통적인 복장과 외관을 갖춘다. 아버지는 다시 집을 나가 친구 집을 방문하고 큰 딸은 설거지를 한다. 어머니와 할아버지, 다른 아이들은 계속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 이웃집에서도 같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소리가 들린다. 대나무 실로폰, 아코디언, 피리, 북, 징 등 여러 악기의 박자를 맞춘 화음 소리가 들리고 곧 문화공연이 시작된다. 공연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계속된다. 아이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잠이 든다. 엄마는 칩구를 펴고 모기장도 설치한다.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들지만 이웃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마치 배경음악처럼 계속 들려온다.

이러한 일상의 모습은 문화관광이 오늘날 마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떤 모순점을 내포하는지 보여준다. 이제는 관광객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마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가구마다 일상에 관광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양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얼마나 관광에 관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위와 같이 주민들은 오직 관광업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다. 홈스테이를 하는 가구의 경우도 대부분은 스스로를 홈스테이업자나 관광업자라고 인식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주민들은 자신이 여전히 농민이라고 한다.

관광객의 대부분은 오후에 마을에 도착하고 4~5시 전후 늦은 오후에 도착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다수가 문화공연을 관람한다. 하룻밤을 지난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마을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떠나고 난 후 낮 시간에 마을은 대체로 아주 조용하

다. 하루 중의 패턴은 이와 같다. 또한 연간 싸이클 패턴도 있다. 국내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 모두의 경우 10/11월에서 이듬해 3/4월까지 즉 겨울철을 중심으로 늦가을에서 봄까지가 절정기이다. 이 기간에 크리스마스 와 양력 신년도 있고, 음력설 뗏(Tet)도 포함된다. 4월 30일 해방기념일(통일기념일)과 5월 1일 국제노동절을 이어 보통 3~4일 연휴도 있다. 2007년부터는 음력 3월 10일 홍왕제사일(Ngay Gio To Hung Vuong)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이 날에도 여행객들이 많다.³⁾

이중에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기간은 뗏 전후의 몇 주간이다. 뗏은 베트남에서 최소한 일주일을 쉬는 가장 긴 공휴일 기간이고 일 년 중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제 기간이다. 국내 관광객, 투어가이드나 관광업 종사자들이 각각 개인적인 뗏 일정으로 바쁘게 지낸다. 반면에 관광업체나 안내서에는 방문객들이 가급적 그 기간에 여행을 피할 것을 권하고, 방문할 경우에는 국제 체인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묵을 것을 권한다. 실제 어떤 해는 뗏 연휴 일주일 동안 단 한명의 관광객도 찾아오지 않은 때도 있었다고 했다. 마이쩌우 마을 주민들에게도 뗏은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일을 멈추고 조상숭배의례를 하고 명절 음식을 만들어 같이 먹고 2주에 걸쳐 가족, 친척이나 친구들을 방문하여 같이 어울린다. 연구자가 이 기간에 마을을 방문했을 때 심지어 수공예품 판매대도 내놓지 않았다. 베트남 ‘국경일’(Ngay Quoc Khanh)인 9월 2일은 절정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기임에도 단체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특히 베트남 학생들이 인솔교사와 수학여행을 오거나 대학생들의 단체여행이 많았다. 아울러 베트남 추석(Chung Thu)에도 학생들을 비롯한 단체관광객이 있

3) 라이쩌우성 사파(Sa Pa)의 경우 여름철이 관광 절정기인데, 저지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고산의 서늘한 기후를 즐기러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이미 프랑스 식민시대 엘리트층의 고산관광에서 시작되었다(최호림 2017a; Michaud and Turner 2006).

고, 하노이에서 어학연수를 하거나 유학을 하는 일본학생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일은 농사일이나 마을과 가족의 여러 행사나 활동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매년 2모작을 하기 때문에 농사일이 가장 바쁜 5-6월과 10월의 수확철에 관광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10월은 관광 절정기와 수확철이 겹치게 된다. 적은 수의 관광객을 받는 가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 가족 중 한 사람만 남아서 관광객을 돌보고 나머지 가족은 농사일을 계속할 수 있다. 관광객이 많은 경우에는 친척이나 이웃의 품을 빌려 수확 일을 계속해야 한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한 번에 도착하면 주민들은 서로서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다. 친척이나 이웃, 옆 마을 주민을 임시로 고용하여 관광객 접대를 위해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게 하고, 혹은 벼 수확 일을 시킨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대개 논일을 하지 않고 집에 남아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 마을에 축제나 행사가 있거나 배구경기를 하면 관광객을 초청하여 참여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관광객은 그룹으로 조직되어 방문하고 단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일은 드물다. 짜인 스케줄을 따라 오는 관광객은 특히 낮 시간에 마을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임무 여러 가지를 매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 행사가 있을 경우 관광객에 식사를 제공하고 다시 주민들이 마을 모임과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을의 실제 일상생활의 면모와 관광홍보를 위한 자료에 나타나는 마을 이미지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마이썬 우 마을을 표현하고 재현하는 방식에는 대체로 마을에 관광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표식과 상징들이 있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있다는 점도 무시하고 있다. 관광홍보물에 마을의

이름이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15번 국도를 따라 방향 위치 거리 등이 표시된 표지판이 연이어 나오고 탐험할 동굴을 가리키는 표지판도 있다. 각 마을을 들어가는 관광객의 통로 입구가 되는 아치도 있고, 홈스테이 허가를 받은 가구마다 등록 번호와 함께 간판이 붙어 있고, 여타 가구들마다 수공예품이나 민속주를 판매한다는 간판이나 표식이 붙어있다.

지금은 주민이 희망하면 관광객 누구나 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 지방 인민위원회에 홈스테이로 등록을 받지 않아도 관광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면 누구나 홈스테이 관광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이나 공식적인 허가 사항은 계약을 맺은 관광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관광안내서나 홍보물에 설명된 바가 전혀 없다. 관광안내서의 내용을 보면 마치 관광객이 ‘초대받은 손님’처럼 와서 마을에 머무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원초적 문화를 담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는 주상가옥은 게스트하우스로 개축되면서 다른 유형의 집보다 크게 지어졌고, 관광객을 재우기 위해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다. 적지 않은 가구가 콘크리트 집을 짓거나 별도로 욕실과 부엌을 지었다. 이러한 주거양식과 내부 인테리어의 상세한 변화뿐만 아니라 주민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텔레비전, 전기밥솥 등의 ‘현대화된’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관광 이미지에서는 빠져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관광업의 경험을 통하여 서로 다른 관광객의 선호에 따라 맞추고 어떻게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배워왔다. 관광 홍보자료들에는 타이족 주민들이 본성적으로 ‘친근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부족민들’로 태어났다는 이미지를 부각한다. 이러한 이미지 뒤에 담긴 고상한 야만인이라는 신화로 인해 주민들의 계산된 행위들은 간과되고 있다.

마이쩌우 홈스테이 마을에는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보다 많은 수의 수공예품 판매대가 있다. 어떤 가구에서도 수공예품 판매를 원한다. 대부분 주상가옥 아래층이나 그 앞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이 걸어 들어와 물건을 구경하고 고를 수 있게 한다. 처음에는 대개 스스로 짜거나 라오스의 친척들과 교역을 통해 구입한 직물제품을 판매하였다. 지금은 수공으로 만든 스카프, 의류, 벽걸이 장식품, 책갈피, 이동전화의 고리나 장식품 등으로 품목이 늘어났고, 스스로 제작하거나 인근 지역의 타이족 뿐만 아니라 호몽(Hmong), 므엥(Muong), 라오(Lao), 자오(Dao) 등 다른 종족집단으로부터 구입한 직물이나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만든 수공예품도 판매하고 있다. 많은 가구에서 하동(Ha Dong)의 ‘실크 마을’을 비롯하여 하노이에 가서 스카프, 가방, 지갑 등을 도매로 구입하여 판매대에 전시하고 있다.

반락마을은 인근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관광객을 받아들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더욱 상업화되었다. 수공예품 판매 외에 카페를 운영하거나 쌀로 만든 민속주를 팔고 워낭이나 활, 화살과 같은 대나무 제품이나 분재를 팔고, 목재를 깎아 만든 장식품이나 기념품 혹은 탁자와 의자를 판매하기도 한다. 학생들 단체관광객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마을에 숙박하면 주민들은 보다 기업가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중앙 도로에 열을 지어서서 방금 만든 신선하고 따뜻한 대나무밥(com lam)과 마을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도 내다 판다. 주로 10세 이하의 어린 소녀들도 게스트하우스 밖에 줄지어 서서 면사로 엮고 작은 구슬로 장식을 한 팔찌나 핸드폰 고리를 엮은 작은 나무 판매대를 들고 고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베트남의 관광안내물이나 홍보물에는 이러한 상업주의의 면모에 대한 이미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대개 “직물을 손으로

직접 짜는 모습을 보고 기념품을 구입한다”고 적혀있지만 오직 “전통적” 직물짜기라고만 묘사하고 있다. 여타의 생산물이나 판매물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Lonely Planet]에는 대안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마을의 ‘현대화’되고 ‘상업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관광업의 영향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관광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현방식에는 관광객과 마을에 대한 관광객의 실제의 시선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IV. 타이족 문화관광마을의 관광객

1990년대 이후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반락 마을에서 처음 홈스테이 영업을 시작한 주민의 설명에 따르면, 1997년부터 하노이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단체 학생 방문객이 빈번해지면서 1990년대 말 즈음에는 매월 약 600명이 방문하였다. 어떤 날 하루에만 백여 명이 몰려와 반락마을의 홈스테이로만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지자 관광업체들이 옆 마을 포른꽁(Porn Coong)에도 홈스테이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조류독감, 사스(SARS),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제적인 전염병과 경제위기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한 해도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매년 관광객 유입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고 홈스테이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였다.

현지조사 당시에는 매월 1천여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와 이중에 약 75%가 마을에서 숙박했다. 홈스테이를 하는 관광객 중에 80% 이상이 반락에서 하였고, 나머지는 포른꽁 마을에서 숙박했다. 매일 밤 숙박객을 받은 가구가 마을마다 최소 한 개 이상 있었다. 숙박을

한 대부분은 외국 관광객이거나 국내 학생그룹 혹은 단체관광객이다. 대부분 하룻밤을 숙박하지만 일부는 한 집에서 이틀을 지내는 경우도 있다. 주로 집이나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하거나 식사를 하고 음료를 마시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과 주변 논과 들판을 산책하고 사진을 찍고 수공예품을 구입한다. 문화공연 관람은 선택이다. 이 중에 외국인 관광객은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거나 이웃 마을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 한두 시간만 체류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관광객도 적지 않다.

마을을 찾는 국내 관광객이 국제 관광객보다 많은 편이다. 국내 관광객은 크게 보아 다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첫째로 단체 여행객 중 다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로서 주로 하노이에서 오고, 일부는 호아빙성이나 하이퐁을 비롯한 북부지방 주요 도시 대학에서 온다. 이 중에는 인류학이나 민족학 전공 학생, 예술 관련 전공학생이 많은데 대개 현장실습이나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수나 교직원과 함께 온다. 물론 학생들만으로 휴가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자비를 들여서 오는데 하노이에서 가깝기 때문에 호아빙성의 여러 곳을 방문하는 과정에 마이쩌우에 오는 경우이다. 이들은 기사가 있는 버스를 대절하여 호이빙 댐이나 김보이(Kim Boi) 온천 등을 포함한 여정으로 방문한다.

두 번째 그룹은 노동자들이나 공무원인데 주로 회사나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국가부문이나 하위 조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로서 사회주의 고용제도 덕분에 은퇴까지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이다(Nguyen Phuong An 2002; Michaud and Turner 2006: 794). 이 분류에는 사영기업이나 합작기업의 근로자들도 포함되며, 관광회사 직원도 있다. 이들 대부분도 하노이나 호아빙성에서 오고, 썬라(Son La), 라이쩌우(Lai

Chau), 타인호아(Thanh Hoa) 등 인근 성 지역에서도 온다. 후자의 경우 1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신에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그룹은 일명 “도이머이 시대의 새로운 풍요로운 소비자들”(post-doi moi newly affluent consumers)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Michaud and Turner 2006: 792). 즉,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소득이 증대된 소비자들이나 신흥 부유층이다. 1990년대 특히 저지대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가구들은 점차 부유해졌고 보다 최근에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관광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자가용으로 하노이나 하이퐁과 같은 대도시에서 온다. 가족 단위의 그룹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친구나 부부, 연인끼리 주말에 오거나, 장기 공휴일 기간에 방문한다.

국제관광객은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주로 온다. 대부분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정으로 마을을 방문한다. 국제관광객 중에는 배낭여행객들과 외국인 현지 주재원도 적지 않고, 일부 학생 그룹도 있다. 투어 가이드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이드 없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흔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외부인이 투어가이드 없이 독립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대다수는 자기 나라에서 예약하여 투어에 참여하는데 직접 여행을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한다. 소수지만 하노이의 여행사나 여행 카페를 통해 현지에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만 여행하지 않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중 일부 국가 여정이 포함된 일정으로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위 7일간 베트남 북서산간지역 여정으로 썬라, 디엔비엔푸, 라이쩌우, 사파의 프랑스 힐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오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인 단체관광객은 북서부의 유명한 인도차이나 전쟁 격전지인 디엔비엔푸를 여정에 포

함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이 메콩과 아세안의 지역 관광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로 베트남 북서부 지방에서 국경을 지나 라오스 북동부 혹은 중국 남서부를 가는 경로도 훨씬 용이해졌다. 대부분의 그룹 관광객들은 하노이에서 출발하여 여정을 마치고 다시 하노이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 일부는 꼭프엉(Cuc Phuong) 국립공원을 들르거나, 호아빙성을 지나 인근의 닌빙성이나 타인호아성을 방문하는 일정을 선택하기도 한다.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 여러 마을을 하이킹하거나 모터바이크나 자전거를 하고 여러 마을을 방문하는 여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여행사가 마을의 숙소를 미리 예약하여 하루나 이틀 정도 숙박하는 경우가 많다.

패키지 투어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유형의 국제관광객은 보통 연인이나 부부끼리 소규모로 여행하거나 혹은 혼자서 여행하는 경우이다. 대개는 지방의 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다니고, 운전수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도 한다. 이들은 비자 문제로 오랫동안 체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곳곳을 많이 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한 달간의 여행 비자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 여행하는 경우이다. 배낭여행객은 흔히 어디로 가고 얼마나 머물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여러 지방을 다닌다. 이들은 또한 방문한 곳에 ‘그다지 할 것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지 가족의 ‘손님’으로 체류하면 프라이버시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배낭여행객 경로에 있는 장소를 찾아 간다. 마이쩌우의 마을에는 흔하지 않는 예외적인 방문객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다. 조사를 하는 동안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3주간 체류하는 호주 자원봉사자들과 1999년 이후 매년 규칙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영국인 전문가를 만나기도 했다.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관광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주민들도 관광객과는 다른 유형이라고 구별하는 방문자가 있었다. 화가를 비롯한 예술가, 언론매체의 구성원이나 연구자들이 찾아와 질문을 하고 주민들 생활의 다양한 면모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는 전통적 생활이나 마을의 기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다. 화가나 사진작가, 기자, TV프로그램 제작자, 학생, 연구자들이 자주 방문하여 마을을 조사하고 자료를 구해하거나 작업이나 촬영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마치 연구자인 나처럼.

“관광객과 학생들 외에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오고 여러 성이나 호치민시나 다른 현에서도 관료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그들은 조사를 위해 오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방문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경우도 많다.”

“어떤 때는 10명 혹은 20명 정도 와서 하룻밤만 체류한다. 이들은 주로 관찰하고 춤과 노래를 함께한다. 밤에는 불꽃놀이(캠프 파이어)를 하기도 한다. 두 연구자가 와서 마을 경제와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자 연구한 경우도 있었다.”

주민들이 설명에 따르면, 생태보존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호주 남성과 그의 태국 부인이 와서 체류한 적도 있다. 그들은 특히 관광과 생태의 영향, 타이족 문화 등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프랑스에 유학한 박사과정 학자가 찌엥사이에서 연구한 적이 있고, 공산당의 관료들이나 베트남사회과학원 문화연구소, 민족학박물관 등의 연구진들이 간혹 와서 조사사업을 수행한다. 마을 지도자들은 타이의 생활과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마을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특히 마을이 문화관광마을로 브랜드화 되면서 주민들이 관광객들 또한 자신의 문화와 생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

하였다. “우리 마을은 문화관광 사이트로서 여기에서 따이의 관습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오기를 원한다”고 했다.

V. 관광객의 동기와 시선

마을의 일상생활의 면모와 관광이미지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것과 같이 관광홍보물에 표현된 이미지와 실제 관광객이 보고 경험하는 방식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실제의 동기를 이해하여야 한다. 맥켄넬이 제시한 바와 같이, 2차적인 관광객의 시선이 ‘보여지는 것에 동반하는 서사를 제공하도록 몰아붙이는 일’에 관여하는데, 그것은 ‘항상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묘사를 뛰어 넘는다’(MacCannell 2001: 32). 다음은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동기에 대하여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론리플래닛 관광가이드북을 들고 여행 중인 젊은 영국인 부부는 북부 베트남을 방문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쩌우를 선택했으며, 특히 사과를 갈 충분한 일정이 되지 못하여 마이쩌우에 왔다고 했다. 즉 ‘마이쩌우가 하노이 외곽을 여행하기에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노이에서 온 젊은 베트남 부부는 친구가 이미 마이쩌우의 홈스테이 마을을 다녀와서 이곳을 추천하였다고 했다. 그들은 ‘하노이에서 가까운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하고 싶었다’고 했다.

하노이에서 온 한 친구가 ‘마이쩌우는 여전히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방문한다고 했다. 신혼부부들인 전문 사진사를 고용하여 여행을 와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사진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

이 ‘아름다운 경치와 색채가 아름다운 민속 의상을 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카메라를 들고 시험 촬영을 하러 다녀가기도 한다. ‘마이쩌우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적인 타이 문화, 타이의 전통 음식과 쌀술(ruou can), 찰쌀밥(com nep)’이 있기 때문에 찾는다고 했다. 또한 하노이에서 가까우면서 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위 세 가지 사례는 관광객들이 시골과 산, 그리고 ‘소수종족의 마을’ 또는 ‘타이족 문화’를 보고 경험하기를 희망하여 이곳에 방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방문객들이 하노이에서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관광홍보물의 설명방식과 일치한다. 특히 ‘소수민족 마을’과 ‘타이족 주민들과 타이 문화’가 고산지역의 가장 지배적인 징표이자 매력이라는 것이다. 영국에서 온 젊은 부부는 하노이 외부에 많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모두 ‘다채로운 종족적 다양성’으로 잘 알려지고 마케팅되고 있는 마이쩌우와 사파 중 한 곳을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관광객이 소수종족 주민들을 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북부 베트남 여러 곳을 다니는 여정 중에 지나면서 하루 묵고 가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관광객들 중 다수는 하나의 소수종족 마을에 머물기보다는 하이킹이나 싸이클링을 하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패키지 관광객이나 학생 단체관광객 중에는 자신이 어디에 와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는 대개 패키지로 짜여진 일정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 방문하는 것이다.

중년의 단체나 청년층 배낭여행객들은 프랑스 국적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식민시대의 주요 역사적 장소를 보기 위해 북서부 산지 루프(northwest loop)를 여행한다. 관광홍보물이나 안내서에 마

이찌우 지역을 방문하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이들은 주로 유명한 디엔비엔푸 전쟁지역과 썬라성의 ‘구프랑스식민감옥’도 방문한다는 점을 기술한 부분은 있다(Florence and Storey 2001: 266). 이들은 하노이에서 썬라에 하루 만에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이찌우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광객들이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마이찌우를 방문하기 때문에 마을과 주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까지 관광홍보물에 표현된 것을 반영하지만 또한 자신의 관점에 대해 보다 실천적인 사람도 있다. 즉,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관광객이 마을과 주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여행 중 일어난 일과 만남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헨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관광객이 주민들에 대한 평가나 주민들과의 행동에 근거하여 관광객을 다양한 분류로 구분하고자 했다(Cohen 1984). 연구자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만난 관광객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첫째는 ‘진정한 것’을 찾아온 성찰적인 유형이다. 대다수 관광객은 주변의 환경, 마을과 주민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좋아하는데 이것이 많은 관광홍보자료의 초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영국인 부부는 마이찌우에서 ‘감명을 받고’(impressed) 와서 너무 좋았다고 했다. ‘진정으로 도시와 농촌이 독특하게 다른 점’을 보았다고 했다. 하노이에서 온 한 중년 베트남 남성은 ‘신선한 공기’가 좋다고 했다. 그는 이미 친구들과 마이찌우를 세 번 다녀갔고 이번에 네 번째 방문이었다. 방문객 대부분은 국영 마이찌우 게스트하우스보다 마을의 홈스테이에서 숙박을 하는데 마을이 보다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독특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마을이 ‘보다 다르다’(more other)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지방의 소수종족 주민들을 만

나러 가는 것에 돈을 쓰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이 ‘매우 친근하다’고 표현했다. 하노이에서 온 베트남 관광객은 마이쩌우 소수민족은 ‘정직하며’ ‘대도시 사람과는 다르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온 배낭여행객은 사람들이 ‘자연에 가까이 살며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고상한 야만인의 신화’를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전형적인 코멘트이다.

관광객들은 관광홍보물에 묘사된 낭만을 그대로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러한 기대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이 너무 편리하다는 것이 놀라면서, 차가운 음료와 선풍기 온수 샤워와 같은 편리함을 즐긴다.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활동적인 관광객은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지만 이들도 역시 편리한 것을 좋아한다. 특히 이들이 외딴 지역을 탐사하고 마을로 돌아온 경우는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것을 반긴다. 투어 가이드들이 관광객으로부터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는 ‘어떻게 이런 마을을 찾았지요? 이런 마을은 아무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It's in the middle of nowhere!)’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마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너무 ‘관광화’되었다는 것이다(too touristy). 하노이에서 온 한 중년 베트남 남성은 ‘이것은 진정한 마을이 아니다. 생활이 관광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호주에서 온 중년 관광객은 ‘무대화된 공연’(staged performances)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성찰적인 관광객 유형이다. 관광의 영향은 관광객 자신의 행위가 마을 주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성찰하는 관광객도 있다. 뉴질랜드에 온 두 명의 젊은 여성은 북베트남을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마이쩌우에서 이틀 밤을 보내었다. 그들은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상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신짜오(Xin chao)’라며 베트남어로 인사를 했다. 아침에 나가 종일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돌아왔다.

그들은 마을 밖에 다른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멈추어 서서 그들을 응시하였다고 했다. 이 중 한 여성은 이들에게 영어로 “Hello”라고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이곳 소수종족의 생활양식을 좋아한다고 했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계를 가지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원하지만 우리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 이것은 소수종족의 일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관광이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둘째는 보다 실용적이고 사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관광객 유형이 있다. 패키지 투어를 따라 호주에서 온 한 중년 여성은 ‘마을이 보다 더 부족적일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고, ‘발전은 불가피하다’(progress is inevitable)고 코멘트하는 사람도 있었다. 교육, 보건 등의 문제에 개입하여 개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에서 온 중년 관광객은 마을의 여러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면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다(loving)고 했다. 그는 외과 전문의였는데 중부 베트남에 베이스를 둔 전문가 팀과 함께 베트남에 5년 동안 계속 방문하고 있다고 했다. 호치민시에는 가보았으나 북베트남에는 처음이고 하롱베이를 가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은 남부보다 북부가 좋으며, ‘사이공은 너무 분주하다(bustle)’고 했다. 그가 베트남 사진을 보면서, 배경에 있는 구름으로 덮힌 산을 가리키며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this is what they're like)”라고 했다. 그는 “보다 많은 나뭇잎이 있는 산의 모습을 제외하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유사한 경치”라고 했다. 그는 프랑스 사람들이 마다가스카르도 정복하

였는데, 별목사업으로 산을 벗기고 붉은 흙이 강으로 씻겨 내려와 계곡까지 덮쳐 황폐해진 모습을 보고 ‘매우 슬펐다’고 했다. 그는 계속하여 ‘사람들은 발전을 원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곳 주민들은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화공연에 참여했던 네덜란드 중년 여성은 공연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이 이미 MTV나 스타스포츠와 같은 국제적 채널과 방송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연구자가 대부분 가구에 텔레비전이 있고 젊은이들 중 마을을 떠나 큰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통적인 문화가 곧 사라지겠다. 내가 여기에 관광객으로 와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생활이다 즉, 낙후된 생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은 진보다.”

셋째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많은 서비스와 매력을 기대하는 관광객 유형이다. 특히 여정 중에 음식과 숙박이 필요하여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 중에는 마을의 상태와 비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도시인들은 마루에서 자는 것이 불편하고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고 담요가 거칠고 벌레가 문다고 불평하거나, 주변이 청결하지 않고 욕실이 너무 멀리 있다고 불평했다. 노인과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는 것에 대해 불평했고 마루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딱딱한 침대에 누워야 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했다. 태국에서 온 한 중년 여성은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겨우 인스탄트 쌀국수와 채소 몇 가지가 모두인 아침식사가 십만동(약 5천원)이라며 너무 비싸다고 했다. 불편한 숙소인데 비해 하룻밤 숙박료가 너무 비싸고 다른 음식도 많이 비싸다고 했다. 그리고 담요에서 지독한 악취가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태국에서 온 중년 여성은 밤중에 다른 모든 사람을 깨워가며 화장실에 가는 것이 고역이라고 했다. 그녀는 마을의 홈스테이보다 오히려 마이썸

우게스트하우스가 숙박료도 저렴하고 부부가 지내기에 더 넓고 욕실과 화장실도 따로 있어서 편리하다고 했다. 하노이에서 온 베트남 여행객은 불평과 만족감을 모두 표현하였다. 그녀는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여 잠을 편히 자지 못해 등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따이 종족은 깁족 보다 온순하고 친절하다. 마을에서 놀랍게도 매우 안전함을 느꼈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을이 관광지로서 많은 오락거리와 관광객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다고 했다. 한 베트남 여성은 마을이 ‘너무 작고 지루하다’고 평가했다. 앞에서 언급한 하노이에서 온 젊은 부부는 마을에 도착한 지 두 시간이 지나자 이미 지루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들은 겨우 하룻밤을 지냈지만 별로 흥미로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마을을 조사한다고 며칠씩 지낼 수 있는지, 심지어 몇 주씩 지내다 갈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연구자에게 질문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요?”, “여기에서 흥밋거리가 뭐가 있지요?” 이러한 평가나 질문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론리플래닛에 설명된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마이쩌우에서는 (사실) 할 일이 없다. 환상적이다. 카메라, 카드, 책, 그리고 무엇이든지 (흥밋거리를) 가지고 가라!”

베트남은 사회주의 개혁 시기에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진화주의를 적용했다(최호림 2012: 538-39). 이러한 이론으로 인해 소수민족은 여전히 ‘원시적’이라고 규정되고 오늘날의 많은 국내 관광객이 주민들을 바라보고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하노이로부터 온 대학생 단체를 만났는데 문화공연을 예약하여 구경한 학생들 중 한 여학생이 나에게 따이 종족의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하더니, 따이족은 베트남의 53개 소수종족 집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 마을의 주상가옥의 형태와 레이

아웃에 대해 설명하였고, 노래와 무용이 “전통적인 타이 문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소수종족은 빈곤하고 낙후되어 있다”고 단정했다. 내가 하노이에서부터 마을에 오기 위해 임대한 렌트카 운전사도 여러 차례 똑같은 설명을 하였다. 이들은 이 마을 주민 앞에서, 마치 이들이 없는 것처럼 타이족과 다른 소수종족들은 원시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넷째는 계속 이동하는 유동적인 관광객 유형이다. 어떤 관광객들은 관광홍보물이나 안내 자료가 아니라 이전의 관광 경험으로부터 마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어 방문한다. 네덜란드에서 온 한 배낭여행객은 기숙사와 같은 숙소를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주상가옥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이미 태국과 라오스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며, “최근에 여러 다양한 집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데 이 중에는 이보다 작지만 더 많은 가족이 복작거리는 집도 있었다. 이 집은 공간이 더 넓고 깨끗하다. 마루가 훨씬 더러운 집에서도 지내보았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에 홍콩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주재원이 휴가로 베트남에 방문하여 북부지역에 여행가이드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는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자신이 아시아지역에 거주하면서 배워왔던 것을 토대로 타이족의 역사와 정치, 베트남 소수종족 등에 관한 보다 전문화되고 깊이 있는 정보에 관해 질문했다.

관광객이 마을과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한 마을에서의 그들의 경험에 달렸다. 대개의 경우 주민들과 관광객 사이의 상호작용은 실제 최소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인들이 마을에서의 관광객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주민들이 관광객 방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집에 체류하는지 등이 관광객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번은 어떤 여행 가이드가 이끄는 팀이 원래 숙박하기로 했던 집에 아이가 태어나 옆집으로 옮겨 문화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으나

관광객들은 그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아무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은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일들 중 하나인데, 오히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여 관광객에게는 이 마을과 그들의 경험을 보다 ‘진정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주민들이 농사일이나 논밭에서 일하는 등의 일상적인 잡일을 수행하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통과 의례가 있으면 관광객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점이 관광객들이 마이쩌우 마을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관광객은 보통 마을 사이의 도로를 산책하면서 마을에 대한 느낌이나 경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한 번은 어떤 관광객이 동행한 다른 관광객들과 가이드에게 “두 마을 중에 가계가 적은 이 마을이 훨씬 좋다”고 했고, 다른 관광객은 “나도 관광객이 적은 마을이 더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지루하다”고 느끼는 관광객도 있는 것이다.

방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있는지 또한 마을에서 관광객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에 사는 호주 여성이 2003년 마이쩌우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이 마을이 싫었다고 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왔고 이들은 마을을 존중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윗옷을 벗어 뚱뚱한 뱃살을 내밀어 보이고 있는 남자들도 있었다. 그러한 관광객들은 자기 집에서 하는 생활방식과 자기가 소유한 집과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을의 모습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해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두 번째로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관광객이 적어서 훨씬 느낌이 좋았다고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광객이 많아서 좋다는 사람도 있다.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고 큰 파티같은 느낌이 들어 좋다”고 한다. 국내 관광객은 대개 보다 큰 규모의 단체관광객이 많고 주로 많은 사람들과 섞여 어울리며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에 관심의 초

점이 있다. 이들은 다른 관광객이 같이 참여할수록 좋아하는데 특히 외국 관광객이 많다는 것이 마을주민들이 느끼는 것만큼이나 큰 매력요소이다.

이와 같이 관광객의 경험과 시선, 그리고 소수종족 마을과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평가 또한 관광홍보물이나 여행안내서가 재현하는 이미지나 신화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광객들이 지닌 동기와 목적에 따라 마을과 주민에 대하여 느끼고 표현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 중에 일어난 일과 만난 사람들에 따라 이러한 경험과 인식과 표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관광홍보물에 표현된 것을 어느 정도 그대로 반영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방문 전부터 지니고 있던 견해를 보다 실천적으로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 나아가 기대와 다른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V. 결론

이 연구는 인류학적 참여관찰과 비구조적 면담을 통해 베트남 호아빈성 마이쩌우현의 대표적인 타이(Tay)족 관광마을의 이미지와 관광객의 시선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마이쩌우의 타이족 마을이 단순히 다종족으로 구성된 국민국가의 통치 대상으로서 독자적인 전통과 고유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사는 산간 오지의 고립된 종족 마을에 머물지 않고 문화관광 마을로 변모해 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관광의 대상이자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소수종족 집단의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국가나 관광업체,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한 외부의 힘과 소수종족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활용한 여러 홍보

자료에 담긴 소수종족에 관한 신화와 이미지가 실제 소수종족의 생활의 면모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제의 관광객의 동기와 시선이 이러한 표상들과 이미지와 소수종족 문화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하여 재구성하는지에 관해 해석하였다

관광 촉진을 위한 홍보물이나 안내서에서 장소나 마을을 둘러싼 환경은 대개 낭만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마이쩌우 타이족 마을에 대해서는 ‘북부 고산지역의 경치 좋은 시골’의 모습이 원초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고상한 야만인이라는 신화는 대개의 ‘종족관광’(ethnic tourism) 홍보물의 이미지에 담겨있다. 현대 사회나 문명을 직접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개 보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행복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다. 마이쩌우의 관광마을에서 고상한 야만인이라는 낭만화되고 이상화된 이미지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본색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방의 손님을 초대하여 맞이하는 환대의 전통’을 지니고 ‘주상가옥에 거주하는 정겨운 가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 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문화관광은 마이쩌우의 타이족 마을의 환경과 주민에서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기본적인 관광객의 시선은 환경과 사람들 모두를 낭만화하는 이미지를 구성한다.

관광산업이 재현하는 이미지는 실제 타이족 마을과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관광객이 지니는 이미지는 고상한 야만인이자 원시적인 타자의 신화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관광산업은 시간성이 없는 이미지를 제조하는데 그것은 탈역사화, 탈맥락화와 함께 사람과 장소를 재현하는 방식을 둘러싼 정치의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관광객의 시선과 평가 또한 이러한 이미지나 신화의 재현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나아가 관광객이 마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마을 주민의 일

상생활의 패턴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묘사해 보면 관광객의 존재와 영향을 간과하는 재현방식이 지니는 모순점을 이해할 수 있다. 가령, 마을 곳곳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홈스테이 안내판, 수공예품 판매대, 외부인을 위한 카페나 오락시설 등은 노골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관광객들의 실제의 동기와 시선을 유형별로 고찰함으로써 문화관광이 촉진되고 홍보되는 동안 국내관광객이나 국제관광객이 서로 다른 이유로 마을에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과 평가를 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별 고찰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과 관광객의 상호작용과 종족문화의 이미지와 관광객의 시선 간의 모순에 대하여 치밀하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관광업의 관리와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관광업체, 여행가이드, 소수종족 주민, 관광객 등 마이쩌우 타이족 문화관광 마을의 행위 주체들 간의 권력관계나 소수종족 문화를 둘러싼 해석의 경합과정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종족 관계의 틀에서 보아 소수종족 마을이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타이족의 마을이면서 동시에 베트남의 마을이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이쩌우의 타이족 주민들은 관광객을 맞아야 하는 호스트로서 임무와 생계를 위한 활동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자 마을 주민이자 베트남의 국민으로서 역할도 함께 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담지 못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최호림. 2012. “베트남의 소수종족과 국가: 종족분류체계 및 종족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527-67.
- 최호림. 2017a. “베트남 관광개발과 고산 소수종족 관광 이미지: 역사적, 비판적 접근”, 『민주주의와 인권』 17(2): 273-309.
- 최호림. 2017b. “북부 베트남 소수종족의 지방사와 종족정체성: 호아빙(Hòa Bình)성 마이쩌우(Mai Châu)현 타이(Táy)족 마을의 사례”, 『동아연구』 36(2): 139~178.
- Allan, Malita. 2011. *Living in a Tourism Village: Strategies, Negotiations and Transformations among Upland Tai in Northern Vietnam*. PhD dissertation, La Trobe University, Australia.
- Biles, A, Lloyd, K & Logan, W. S. 1999. “Romancing Vietnam.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Tourist Images of Vietnam,” in J Forshee, C Fink & S Cate eds. *Converging Interests: Traders, Travelers and Tourists in Southeast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p.207-233.
- Cohen, E. 1984. “The Sociology of Tourism: Approaches, Issues, and Finding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0: 373-392.
- Dang Nghiem Van, Chu Thai Son & Luu Hung. 2010. *Ethnic Minorities in Vietnam*, Hanoi: The Gioi Publishers.
- Florence, M & Storey, R. 1999. *Lonely Planet Vietnam, 5th Edition*, Melbourne: Lonely Planet Publications.
- Florence, M & Storey, R. 2001. *Lonely Planet Vietnam, 6th Edition*, Melbourne: Lonely Planet Publications.

- Hoa Binh Trade and Tourism Department n.d. "Mai Chau", *Welcome to Hoa Binh*, pp.12-13
- Kennedy, L. B. & M. R. Williams. 2001. "The Past Without Pain. The Manufacture of Nostalgia in Vietnam's Tourism Industry," in Hue-Tam Ho Tai (ed.) *The Country of Memory: Remaking the Past in Late Socialist Vietnam*, Berkeley,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135-163.
- Khanh Sinh International Tourist Company n.d. *Travel Programs, Discover Mysterious Nature*.
- MacCannell, D.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Schocken Books.
- MacCannell, D. 2001. "Tourist Agency", *Tourist Studies*, 1(1): 23-37.
- McGrane, B. 1989. *Beyond Anthropology: Society and the Oth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chaud, J & Turner, S. 2006. "Contesting Visions of a Hill-Station in Vietna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3): 785-808.
- Nguyen Phuong An. 2002. "Looking beyond Bien Che: The Considerations of Young Vietnamese Graduates When Seeking Employment in the Doi Moi Era,"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17(2): 221-249.
- Nguyen Van Thang. 2007. *Ambiguity in Identity. The Mieu in North Vietnam*, Chiang Mai: Silkworm Books.
-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Western Conceptions of the Orient.*, New York: Pantheon Books.
- Selwyn, T. ed. 1996. *The Tourist Image: Myths and Myth-making in Tourism*. Chichester & New York: John Wiley.

- Taylor, Philip. 2008. "Minorities at Large: New Approaches to Minority Ethnicity in Vietnam,"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3(3): 3-43.
- Taylor, N. A. & Jonsson, H. 2002. "Other Attractions in Vietnam," *Asian Ethnicity* 3(2): 233-248.
- Urry, John. 1990.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London & Newbury Park: Sage.
- Viet Hung. 2005. "Stairway to Heaven", *Timeout*, May 30-June 5: 10-11.
- Wang, N. 2000. *Tourism and Modernity: A Sociological Analysis*, New York: Pergamon.
- Wang, Y. 2007. "Customized Authenticity Begins at Hom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3): 789-804.
- Wendy Wu Tours. 2004. "Vietnam Highlights", *Indochina, Vietnam, Cambodia, Laos, Myanmar 2004-2005*, pp.1~25.
- "Hòa Bình" https://vi.wikipedia.org/wiki/H%C3%B2a_B%C3%ACnh;
호아빙성인민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oabinh.gov.vn/>
(최근 검색일: 2017년 6월 23일).

(2018.07.15 투고, 2018.07.17 심사, 2018.07.31 게재확정)

<Abstract>

Tourism Images and Tourist Gaze: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Ethnic Tay Tourism Villages
in North Vietnam

CHOI Hor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ethnographic study to explore the cultural tourism villages of the ethnic Tay people in Mai Chau district, Hoa Binh province, northern Vietnam. We can draw out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representations and realities by focusing on the patterns of everyday life in the villages as well as the tourists' actual gaze on the villages. This paper begins by describing the content of some of the current tourism promotional material about the villages and the ethnic Ta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yths and images which the tourist industry identifies as worth viewing. And then, it provides descriptions on daily life in the villages and the tourists visiting the villages to discuss how tourism actually occurs in the villages. By focusing on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images and realities, a more actual picture of the villages can be seen.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categorize the various types of tourist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and motives visit the villages.

42 동남아시아연구 28권 3호

Key Words: Vietnam, the ethnic Tay, cultural tourism, tourists gaze,
tourism images